



게임기획사·국회의원 비서 서울 직장 포기 개·토끼·닭 키우며 출판사 '책구름' 운영

“새소리는 자명종... 텃밭에선 행복이 자라요”

호주 신혼여행서 생태체험후 화순으로 귀촌 정태준·안정숙 씨 부부

“삶에는 정답이 없잖아요. 도시를 떠나 귀촌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희 가족은 그럴 필요도 지금 행복해요. 커다란 집과 비싼 자동차를 목표로 오늘을 희생하기보다 가족과 내 삶에 충실한 오늘을 선택한 거예요. 만약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해 보신 후 도전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화순군 북면에서 출판사 '책구름'을 운영하고 있는 정태준(33)·안정숙(여·34)씨 부부는 16개월 된 예쁜 딸 준영이와 7개월 전 서울을 떠나 한적한 시골마을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다. 전주 출신으로 국회의원의 정책비서를 일하던 안씨와 광주에서 태어나 게임기획자로 일했던 정씨는 그동안 서울에서 생활하며 화순과 특별한 인연이 없었다. 서울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던 부부가 갑자기 귀촌을 선택한 배경에는 '특별한 신혼여행'이 있다. 지난 2008년 5월 결혼한 이들은

2009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호주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신혼여행을 해외로 2년간 다녀왔다고 하면 저희가 돈이 많아서 화려한 여행을 다녀왔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호주의 고기공장, 허브농장 등에서 일하며 신혼여행 경비를 마련했어요. 타국생활에 지칠 때도 많았지만 저희 부부가 서로에 대해 오롯이 알아가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특히 가족 중심적이고 생태친화적인 삶을 사는 호주인들을 보며 저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됐고 귀국 후 새로운 생활을 선택하게 됐어요.”

부부는 화순에 내려온 이후 오전 6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눈을 뜬다. 그리고 그들이 꿈꿨던 가족중심적인, 생태적인 삶을 살고 있다. 호주 신혼여행 이야기를 묶어 '호주와 나 때때로 남편'이라는 책을 최근 출판한 안씨는 오전 시간을 온

전히 아이와 함께 지낸다. 그동안 남편은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출판사 업무와 새로 출간할 자신의 책 원고작업을 한다. 오후에는 부인이 새로 출간할 책 원고작업을 하며 남편 정씨가 아이와 함께 개, 토끼, 닭들을 보살핀다. 귀촌을 하고 프리랜서나 다름 없는 1인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한적한 생활을 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부부는 최소 하루 8시간 업무시간을 정해 놓고 생활하다 보니 서울에서 직장생활 할 때 보다 분주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실 부부는 화순에 특별한 연고가 없다. 아이가 뛰어놀 수 있는 작은 마당과 텃밭이 있는 집을 찾다가 서울과 경기도는 너무 비싸서 선택할 수 없었다. 결국 거리가 멀지만 화순까지 오게 됐다. 낯선 곳에서 '외롭지 않아요?'라는 질문에 부부는 서울에서 생활할 때보다 더 많은 인연을 만났다고 말한다. 특히 인심 좋은 시골마을의 매력에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말했다.

“화순으로 이사 온 직후 마을 분들이 먼저 찾아와서 이것저것 도와주시고, 저희가 서울로 출장을 갈 때면 주민들이 와서 사료도 챙겨주세요. 처음에는 시골마을의 분위기가 낯설었지만 지금은 이런 분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행복해요.”

새 보금자리에서 첫 번째 봄을 맞는 부부는 울려 태어날 둘째 아이와 함께 텃밭을 가꾸며 앞으로도 이곳을 지키고 싶다고 말한다.

“집 근처에 걸어서 갈 수 있는 카페가 없다는 점이 유일한 아쉬움이에요. 그렇지만 아이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고, 가족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텃밭을 손수 기를 수 있는 텃밭까지, 귀찮아하던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아 걱정했는데 실제 생활해보니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은 거 같아요. 귀촌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말씀이 많고 도전하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에 허승호씨

한국신문협회(회장 송필호)는 허승호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고 24일 밝혔다.

허 사무총장은 서울대 경영학과와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1986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편집국 경제부·사회부 차장, 경제부장, 편집국 부국장,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지각 걱정 마세요... 청춘택시가 갑니다”

취업 사이트 프로젝트 선발 조선대 정슬기씨 교내 운영

수업시간에 늦어 허겁지겁 뛰어들어가는 학생들을 교실까지 무료로 태워주는 택시가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조선대학교 4학년 정슬기(27)씨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청춘택시'를 운행하며 등굣길 학생들을 캠퍼스 곳곳에 태워주었다.

정씨는 취업 사이트 사장이 진행한 '청춘' 프로젝트에 선발돼 택시를 운영하게 됐다. 그는 학교 전광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을 통해 사전에 청춘택시를 홍보했고, 이날 하루 동안 학내 곳곳에서 120여 명의 대학생을 만났다.

정씨는 “조선대학교 캠퍼스가 넓고 본관 건물이 경사지에 있어 택시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에 착안하여 청춘택시를 운행하게 됐다”며 “지각할 뻔한 학생들이 청춘택시를 이용해 수업시간에 맞춰 편하게 갈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해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씨는 지난 2013년 법제처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국민 행복법령 만들기 제5회 대학(원)생 아이디어 공모제’에서 우수상을 받는 등 10여 차례 공모에 당선됐다.

‘청춘아’ 프로젝트는 대학생들이 캠퍼스에서 5시간 동안 봉사 아르바이트 활동을 하면 등록금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5기는 전국에서 정슬기 학생을 포함한 3명이 선정됐다.

/양세열기자 hot@

김장훈, 아프리카 유소년 축구단 구단주 된다

가수 김장훈이 아프리카의 유소년 축구단 구단주 설립을 위해 케냐로 출국한다. 김장훈은 24일 오후 9시 국제비행기 탑승을 마치고 12일간의 일정으로 아프리카 희망학교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소년 축구단을 선발하고 구단주와 후원을 맡는다.

/연합뉴스



호남대, 국제대학스포츠연맹 포럼



호남대(총장 서강석) 광산캠퍼스 문화체육관에서 최근 68개국 100여명의 대학생 대표단들이 체육활동을 펼쳤다. <호남대 제공>

조선대, 1000호 대작 '꿈의 정원' 제막식



조선대학교(총장 서재홍)는 최근 대학 해오름관에서 1000호 그림 제막식을 가졌다.

1000호 대작 '꿈의 정원'은 조선대 동문인 김규탁 장흥유리병원 이사장이 작품 제작비 3000만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하고, 서양화가 진원장 교수(회화학과)가 재능기부해 완성한 작품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최상준 부회장, 결석학생 후원 1억원 기탁



최상준(남화도건 부회장·오른쪽) 빛고을결석학생후원재단 이사장은 24일 결석학생 돕기 후원금으로 1억원을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에 기탁했다. 그는 지난 2012년 이사장 취임 후 총 3억 5000만원을 결석학생 돕기에 후원했다.

최 이사장은 “광주 학생들이 미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결석학생 제로화 사업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문방진 변호사, 개업 축하 쌀 요양원 기부

부장관사 출신 한 변호사가 개업소언 축하명목으로 받은 쌀을 노인전문요양병원 등에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고 변호사길을 택한 문방진 변호사는 최근 개업소언에 들어온 기부미 1770kg(정남진장흥농협쌀)을 ‘장흥지역자활센터’에 1270kg, 광주 북구 분촌동에 있는 ‘행복노인전문요양병원’에 500kg을 각각 기부했다.

/정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건보공단 광주동부지사 금연서포터즈 발대



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지사장 한영덕)는 최근 건강백세운동교실 운동 강사 13명을 대상으로 '금연서포터즈 발대식' 행사를 실시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 제공>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5000년 해적사 출간

국내 '해적사 1호'로 불리는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5000년 해적 역사를 정리한 책을 출간했다. 김 청장은 '바다와 해적'(출판사 오션&오션)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해적의 역사는 해양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며 “항해의 역사는 4000년 내지 5000년으로 추정한다면 해적 역사는 그만큼 오래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책에는 역사의 진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해적들이 동서고금을 넘나들며 등장한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왜구가 역사적으로 조선 개국에 하나의 동력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삼계가 고려 말 왜구를 토벌하며 국민적 영웅으로 부상했기에 조선 건국도 가능했다는 추론도 제기된다.

그는 해적사회가 철저한 평등정신을 기반으로 운영됐고 기존 질서에서 벗어나 자유를 추구한 최초의 글로벌 집단이라는 해석을 조명하면서도 해적을 낭만과 동경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김승(전 광주 서부교육장)·강성숙 씨 장남 동국(삼성불산)교 박순철·이민자씨 장녀 지후양=30일(일) 낮 12시 광주 라베웨딩홀 3층 더 클래식 홀.

▲조영록(곤지암교 교사)·최순노(곤지암초 교사)씨 장남 원혁(미국 캔자스대 연구원)군 장형래(TBN한국교통방송 전 편성제작국장)·오정숙씨 장녀 가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양=29일(토) 오후5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웨딩홀 02-880-0300.

동창동문회

▲광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39회 동창회=29일(토) 오후 6시 광주 동구 계림동 금수장 관광호텔 010-9473-2991.

종친회

▲합평 이씨 광주종친회 정기총회

=30일(일) 오전 10시 광주 서구 상무중학교 010-4951-4986.

▲경주 배씨 나주 종친회=30일(일) 오전 11시 부안군 정계면 태봉리 태봉사 010-560-3507.

▲전주 강씨 광산군 종회(회장 강태수) 정기총회=29일(토) 오전 11시 광주 광산구 송정동 광산시민연대 3층 사무실 062-944-2383.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북구분회 정기총회=29일(토) 오전 11시 광주·전남 지원 회의실 3층 분원실 010-4626-1165.

▲고령 신씨 전남서부·광주총회 정기총회=29일(토) 오전 11시 광주 서구 화정동 광덕고등학교 2층 회의실 010-7322-4938.

▲전주 강씨 영암군 종회(회장 강대진) 정기총회=27일(목) 오전 11시 영암읍 우정회관 010-4816-3060.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강진분회 정기총회=25일(화) 오전 11시 강진군 수협 남성지소 2층 분원장 010-2642-1110.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시 062-136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부부갈등·가족갈등·체류·국적취득 등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할 때 자국어로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가 가능한 기관. 경찰, 병원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등이 요청하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통역을 통한 긴급지원서비스함. (광주센터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062-366-1366, 367-1577, 368-1577.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솔 및 위기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

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 발달·안정 위한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모집

▲팔관문화 아카데미(원장 조대호)=만화기초수업 초등학생부·중학생부·고등학생부·일반부·취미반 수시모집(원장님 1:1개인지도), 남구 방림동 샘신평 3거리 070-4065-5054, 010-8947-3006.

▲장애인 체육 동호인=광주시장 애인체육회 방문 및 홈페이지(www.gjsad.or.kr), 전화 상담 후 신청 062-384-5544.

▲놀이패 '신명' 단원=연극·탈춤·

풍물·소리 등에 관심 있는 젊은 남녀 062-527-7295.

▲화순 호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목욕 신청자=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는 분 061-373-8865.

▲사랑모아 가족복지회 회원=종이공예·독서모임·성교육 스터디 강사, 생활체육 배드민턴 회원 모집 062-385-0422.

▲아카데미 자원봉사회의 자원봉사자=월 3~4회 노인 돌보미·노인 무료급식·환경 사수대 활동 가능한 봉사자 모집 062-412-3201.

▲청수 조기 축구회 회원=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 7시부터 수장초 운동장 017-612-7695.

▲불림 동호회 '다이아몬드' 회원=30세 이상 부부,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011-607-0347.

▲한국웃음협회 회원=건강회복과 웃음문화 보급을 위한 웃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016-607-1958.

부음

▲김병윤씨 별세 삼영·희창·영주·인숙·성란씨 부친상 문양식·김재완(창평컨트리클럽 사무이사)·신항식씨 부부상 이영미·박계희씨 시부상=발인 26일(수) 광주 첨단 보훈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973-9161.

▲김중옥씨 별세 선근·선장·선란·선덕·선남·선남·선효씨 부친상 이영

자·박정애씨 시부상 김두석·정몽주·강영구·김주성씨 부부상=발인 26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서용섭씨 별세 기열·성열·민복·재운·강열·상필·정순씨 부친상 김오순·진희경·김수임·박성연·박선화씨 시부상 오복렬씨 부부상=발인 25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卍

201호 故신순자 님(여/76세) 夫君: 김요광 子/子婦: 김경중 女/婿: 김영희/김진호, 영미/신홍림, 영주 ●호 실: 201호 ●발 인: 3월 26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1	102호 故정경순 님(여/73세) 子/子婦: 박승희/박미경, 현식 女/婿: 박연희/남궁현원 ●호 실: 102호 ●발 인: 3월 26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6
101호 故민영복 님(남/89세) 子/子婦: 민경진/이수영 女/婿: 민경희/서수영 ●호 실: 101호 ●발 인: 3월 26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5	402호 故김영준 님(남/70세) 子/子婦: 김경운/박지영 女/婿: 김연희/하남일 ●호 실: 402호 ●발 인: 3월 25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14

孝 金 浩 宗 烈 氏 喪 禮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